

‘광주형 일자리 구하기’ 與 광주 총출동 현대 완성차 공장 설립 ‘돌파구’ 열리나

광주시, 노동계와 대화 재개
 주거·복지 혜택 강화하기로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사업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와 대화를 재개했다. 광주시는 적정 임금과 함께 주거와 복지 혜택을 주는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거·복지 혜택을 강화, 노동계를 끌어안는다는 복안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광주를 찾아 완성차 공장 설립 성공 전략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23일 오후 노동계와 대화를 가졌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겠다”고 이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대화에는 광주시와 노동계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노동계와 추가 협상을 통해 적정 임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도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광주시청에서 ‘민선 7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민·박광온·설홍길·김해영·이형석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다. 이해찬 당 대표 일행은 완성차 공장 부지인 빛그린산단에 직접 들러 현장 상황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 2018 광주권일자리박람회가 23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박람회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참가 업체들 부스에서 면접을 보고 있다. ▶관련기사 8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홍영표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비중 있게 언급했다. 그는 “내일 광주에 가서 광주형 일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이라면서 “한계에 도달한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차산업과 제조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의 중요성 강조하고 이른 시일 안에 광주형일자리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광주시의회에서 광주형 일

자리 관련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어서 완성차 공장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표도 지난 9월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위한 중대과제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광주시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행보가 ‘완성차 공장 투자’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현대자동차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노동계의 불참으로 광주 투자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장은 “그동안 서면으로 질의를 주고 받았던 노동계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이 조만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 왜곡 전두환 기소 홀름’ 국감서 칭찬 받은 광주지검

박지원 의원 “존경 표현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 검찰 인력 부족 등이 집중 거론됐다. 광주지검은 이례적으로 의원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관련기사 3면> 박지원 민주당평화당(목포시) 의원은 23일 광주지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홀름한 수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광주지검 검찰 관계자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극찬했다. 박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

문을 비롯한 50만쪽에 이르는 각종 기록을 조사하고, 헬기사격 목격자 47명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홀름한 수사를 해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이러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비로소 역사가 밝혀지고, 전 전 대통령도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됐다. 이래야 광주지검이다”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박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광주지검에서 열린 광주·지법 10개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짓밟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반드시 광주지검에 세워야 한다.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알립니다

2018 달빛 소나기 - 대구

‘달빛동맹’ 광주·대구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

11월 16·17일 대구광역시 일원 +기쁨’을 표현한 함축된 말입니다. ‘달빛소나기’는 ‘소통하고 나누는 기쁨’을 얻는 행사라는 의미로서, 광주와 대구의 참가자들이 한데 모여 문화콘텐츠를 소재로 심도 있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 장(場)입니다. ‘2018 달빛소나기-대구’가 양 지역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생 발전을 앞당기는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11월 16·17일 대구광역시 일원

■일 시 : 2018년 11월 16일(금) ~ 17일(토)
 ■장 소 : 대구광역시 일원
 ■참가자혜택 : 참가비 무료, 기념품 및 음식 제공
 ■참가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41
 ■주요프로그램

11월16일(금)	part1. 달빛 소통	14:00~16:00	탐방 프로그램 (김광석길&방천시장 등)
	part2. 달빛 나눔	17:00~21:00	개막식/멘토특강/달빛콘서트
11월17일(토)	part3. 달빛 기쁨	09:00~14:00	투어 프로그램 (대구 중구 근대로 골목 등)

■주최·주관 : 광주일보, 영남일보
 ■후 원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일보

광주 광산세무서 신설 최대 이슈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광주·전남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영세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으며, 광주형 일자리 확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감소를 위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23일 오전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광산세무서 신설문제로 지역 아파트값 폭등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광주형 일자리 확산과 호남지역 경제 낙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도 쏟아졌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과 세정지원 그리고 여성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각 기관에 당부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광주시 남구와 광산구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탈세를 철저히 차단해야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어떤 각도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주름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나이 들어 보일까요?
 주름, 기미, 잡티는 쉽게 기릴 수 있지만, 힘 없이 처진 얼굴탄력은 숨길 수 없죠
 뿌리부터 인삼에너지를 담은 설화수 자음생에센스가 약해진 탄력 지지 구조를 강화해주는 자음생에센스-
 이제, 시간의 흐름과 외부 자극에도 흔들림 없이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Reductive Object © Kimsooja Studio LLC
 *설화수, 플레그시스트어 및 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플레그시스트어: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